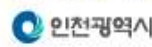
		<h2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2>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2월 16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 소득작목팀장    도학윤 ☎440-6925 • 담당자            장수영 ☎440-6926		
<b>사 진</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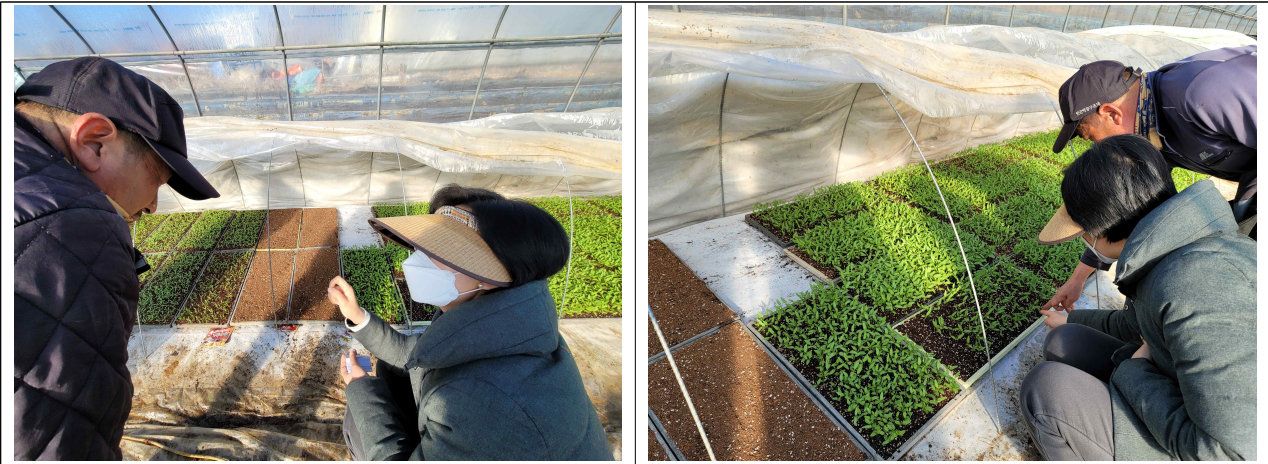
### 고추 파종 · 육묘의 모든 것!

- 인천농업기술센터, 고추 파종 후 생육관리 지도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파종 후 생육관리 현장지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고추 파종 적기는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다. 아주심기(정식) 예정일이 시설하우스 재배일 경우 4월 10일 전후, 터널재배 15일 전후, 노지 재배일 경우 4월 말에서 5월 5일 전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85~90일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품종을 선택할 때에는 병과 재해에, 특히 탄저병 · 역병 · TSWV(칼라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지 환경 · 관리조건 · 소비자 기호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품종보다는 두 개 정도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파종 전 싹을 틔울 때는 30℃의 물에 5~10시간 정도 담근 다음 1~2일간 25~30℃를 유지해야 하며, 육묘상자에 전열선을 설치해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 파종 후에는 물을 충분히 준 다음 4~5일간 25~30℃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고, 싹이 나면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을 정도로 환기를 해야 한다. 싹이 튼 후 10일경부터는 2~3일간격으로 오전 10~12시 사이에 2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모판 아래까지 스며들도록 충분히 줘야 한다.
- 육묘 기간 중 잘록병, 진딧물, 총채벌레 등 병해충이 발생하면 정식 후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를 하여 건전한 모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영덕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은 “고추는 육묘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육묘 기간 중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고추 육묘 현장 지도 사진 >



농가방문 후 고추 육묘 현장 지도